



시로 읽는 성보순례  
용주사 동종  
국보 제120호 용주사 동종  
고려시대 ▶2면

# 현대불교

이기심을 채우려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아라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장보장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10월 2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18호 2012년 12월 12일 수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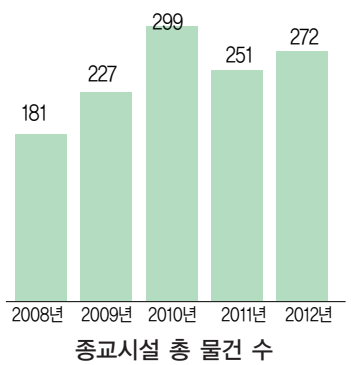


**“불교 미래 제시하는 언론 기대”**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2월 5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0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한 해 동안 불교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한 불교 언론인들을 시상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자비실현의 불교이념을 알리는 것은 불교 언론문화의 소중한 일”이라며 “오늘 시상식을 통해 수상자 여러분의 공적을 높이 기리고 건강한 사회 발전에 일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불교언론문화상 운영위원장이자 총무원 문화부장인 진명 스님과 상을 후원하고 있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도 인사말 등을 통해 불교 언론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본지 최정희 편집이사는 불교언론인상을 본지의 연중 기획 기사 ‘불교는 서원의 종교 - 나의 서원 나의 신행’은 신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척박한 불교계 언론 환경에서도 불교 문화 진흥에 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최정희 편집이사는 수상 직후 “함께 해 준 모든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힘이 다하는 날까지 불교 언론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교 언론 발전을 위해 노력한故김재일 이사장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는 KBS 부처님 오신날 특집 ‘히말라야에서 부처를 만나다’가 수상했다. 글=신종일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 장기 불황 여파, 종교도 못 피했다

경매 나온 종교시설 272개... 작년보다 10% 증가

장기 불황의 여파가 이제 종교계에 까지 미치고 있다. 경매에 나오는 종교시설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법원 경매정보 전문 업체 부동산 태인에 따르면 올해 현재 사찰, 교회 등 법원경매에 나온 종교시설의 총 물건 수는 272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 251개에 비해 1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경매에 부처지는 종교시설 물건 수는 300개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매에 나온 종교시설 총 물건 수는 2008년 181개, 2009년 227개에 이어 2010년 299개로 늘어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후 2011년 251개로 다소 감소했다가 올 들어 272개로 상승했다. 하지만 종교시설 낙찰률은 지속

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0년까지 19~20%선을 보이던 낙찰률은 2011년 15.54%, 올해 15.07%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박종보 부동산 태인 연구원은 “지난 2000년 대 중후반 부동산 활황기 시절, 대출을 받아 건물을 증축했거나 신축한 이후 원리금을 제때 내지 못해 경매로 넘겨지고 있다”며 “종교시설이 경매장에 나온 경우 해당 종파에서 다시 낙찰받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마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 여파가 종교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신종일 기자

# 차 “전통사찰 정비” 文 “불교 사회활동 지원”

## 새누리당·민주통합당 양 후보 불교 공약 발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1주일 앞둔 가운데 박근혜, 문재인 양 후보가 불교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박 후보 측이다. 새누리당은 11월 5일 텀플스 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불교정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불교 정책 공약은 △화해협력과 상생을 위한 형평성있는 정책 추진 △전통사찰에 대한 종합적 정책 수립 △문화재 보호 예산 증액 △10.27법안 피해자 명예회복 △전통사찰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 허용 △전통 사찰 규제 완화 △조계사 문화관광지구 계획 수립 △민족 전통문화 보전 등 9가지다.

주요 내용들은 전통사찰 정비와 문화재 보존에 초점이 맞춰 있으며, 이는 조계종이 각 대선캠프에 전달했던 요구 정책안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화해 협력을 위한 정책을 위해 새누리당은 각종 정부위원회에 불교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확대하고 공직자 종교편향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와 처벌을 약속했다. 다종교, 다문화 시대에 맞춰 (가칭)차

별방지법, 증오범죄처벌법을 신설하고 이주노동자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사찰 전반에 대한 정비 대책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새누리당은 전통사찰에 대한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구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둘 것을 제안했으며, 사찰 중점 규제 법령들의 개정도 약속했다.

### 차 조계종 정책안 대폭 수용

### 文 사찰통한 일자리 창출

### “알맹이가 없다” 비판도

특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농지보전 부담금에 대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를,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농지법 제6조의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개정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전통사찰의 중첩 규제 완화를 위해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감면도 약속했다.

공약 설명에 앞서 주호영 새누리당 불교특위위원장은 “불교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와 주요 종단들의 정책안들을 받아들였다. 예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화해협력과 상생을 위한 형평성있는 정책 추진(증오범죄법 제정 등) △전통사찰에 대한 종합적 정책 수립(전담 부서 신설 등) △문화재 보호 예산 증액(문화재보호요금 5000억 조성) △10.27법안 피해자 명예회복 △전통사찰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및 농지 취득 허용 △조계사 문화관광지구 계획 수립 △민족 전통문화 보전(용주사 인근 효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남북불교 교류협력 사업 시행(설악산, 금강산과 전통사찰 유네스코 복합 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전통문화 유산과 자연 유산의 보존·관리 종합 정책 수립 △사찰을 중심으로 자비실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살리기(사찰 신재생 에너지 도입 시범사업 지원 등) △종교의 자율성 보장 및 다종교·다문화 사회의 정착 △전통사찰의 공공성 보장

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어 큰 기조를 중심으로 정책 공약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 측의 불교 공약은 불교계의 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문 후보 측이 제시한 불교 정책은 총 5개 주제로 △한

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남북불교 교류협력 사업 시행 △전통문화와 유산과 자연 유산의 보존·관리 종합 정책 수립 △사찰을 중심으로 자비실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살리기 △종교의 자율성 보장 및 다종교·다문화 사회의 정착 △전통사찰의 공

공성 보장 등을 약속했다.

부분별로 살펴보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존하는 통합전담기구 신설을 비롯해 다종교 다문화 시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제정, 전통사찰 농지 취득 허용, 보전부담금 감면, 조계사 인근 전통문화관광지구 지정, 10.27법안 특별법 개정 등은 새누리당과 비슷한 공약들이다.

하지만 사찰을 중심으로 한국형 도농공동체 설립, 사찰과 사하촌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민주통합당만의 새로운 정책 제안이다.

설악산, 금강산, 비무장지대와 전통사찰을 유네스코 세계 복합유산으로 등재하고 불교 전적, 금석문 등 불교 기록유산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남북한 불교문화재 전수 조사를 통한 남북불교 교류 활성화를 약속했다.

또한 동아시아 불교 공동체 구축을 위한 ‘동아시아불교평화위원회’ 구성과 정전 60주년을 맞아 영산재, 팔관회 등 전통불교의례로 구성된 위령제를 병행하는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장문 민주통합당 불교특위 상임부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의 종교정책은 단순 종교 활동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서 지역의 자연 생태 보전과

복치·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장하는 방향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남북불교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요 후보의 불교 정책 공약에 불교계 인사들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불교계의 요구 사항을 달래기 위한 ‘신신 공약’이라는 것이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대표 범용 스님은 “불교 유·무형 문화유산은 국책사업과 개발로 인해 훼손당하며, 고립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근원적인 불교 및 역사문화유적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대안이 부재하다. 결과적으로 양당 공약은 지엽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소 상임대표(서강대 교수)는 “사실 공직자 종교편향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종교편향은 90%이상이 학교에서 벌어진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면서 “‘증오범죄법’ 제정과 사찰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은 상당히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관련 칼럼 31면

## 918호 INDEX

종합 2·3

인터뷰  
조계종 원로회장 밀은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조계종 색신위 직선계 좌담회

시방세계  
아름다운동행 후원의 밤



나의 서원 나의 신행 16·17  
각현 스님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지구 환경을 해치는 종이컵 대신 이제부터 (범어가 담긴 에코컵)을 사용하세요. 늘 곁에 두고 음미하고픈 대법스님의 법어!

**범어가 담긴 에코컵**

series 1. 마음 series 2. 대장부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 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용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size check  
— 75mm —  
75mm  
— 55mm —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도 안심맞춤!

종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원)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삼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